

# 한 국 사

문 1. 밑줄 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시기에는 반달 돌칼 등 다양한 간석기가 사용되었고  
민무늬 토기를 비롯한 토기의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고인돌과  
돌널무덤이 만들어졌다.

- 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 ②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거주하였다.
- ③ 용호동 유적에서 불 땀 자리가 확인되었다.
- ④ 목을 길게 단 미송리식 토기가 사용되었다.

문 2. 다음은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다. (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전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고, 유학 교육기관으로  
대학을 설립하였으며, 율령을 공포하였다.  
(나)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개로왕을 죽였다.

- ① 모용황의 공격을 받았다.
- ②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 지역에 진출하였다.
- ③ 북쪽으로 숙신을 정복하였다.
- ④ 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역에서 왜병을 대파하였다.

문 3. 다음은 원의 세조가 고려에 약속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 약속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옷과 머리에 쓰는 관은 고려의 풍속을 유지하고 바꿀  
필요가 없다.  
○ 압록강 둔전과 군대는 가을에 철수한다.  
○ 몽고에 자원해 머문 사람들은 조사하여 모두 돌려보낸다.

- ① 정동행성을 설치하였다.
- ② 2차 여몽연합군은 일본 원정에 실패하였다.
- ③ 쌍성총관부를 설치하였다.
- ④ 사립원을 설치하였다.

문 4. 다음 족보가 편찬된 시기의 사회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는 자고로 종법이 없고 보첩(譜牒)도 없어서 비록  
거가대족(巨家大族)이라도 가승(家乘)이 전혀 없어서 겨우  
몇 대를 전할 뿐이므로 고조나 증조의 이름도 호(號)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

— 『안동권씨 성화보』 서문 —

- ① 남자는 대개 결혼 후에 바로 친가에서 거주하였다.
- ② 자손이 없으면 무후(無後)라 하고 양자를 널리 맞아들였다.
- ③ 아들을 먼저 기록하고 딸을 그 다음에 기록하였다.
- ④ 윤회봉사·외손봉사 등이 행해졌다.

문 5.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 7년 5월에 왕이 하교하여 문무관료전을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 왕 9년 정월에 하교하여 중외 관리들의  
녹읍을 과하고 세조(歲租)를 차등 있게 지급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도록 했다.

— 『삼국사기』 —

- ① 독서삼품과가 시행되었다.
- ②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③ 중앙군을 9개의 서당으로 개편하였다.
- ④ 관직과 주군현의 명칭을 중국식 한자명으로 바꾸었다.

문 6.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는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민인은 토착하여  
곡식을 심고 누에치기와 뽕나무를 가꿀 줄 알며 면포를  
만든다. 각기 장수(長帥)가 있어 큰 세력을 지닌 이는  
스스로 신지(臣智)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邑借)라 한다.

— 『삼국지』 —

- 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의 배상을 하게 하였다.
- ②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를 두었다.
- ③ 특산물인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을 수출하였다.
- ④ 파종한 5월과 추수한 10월에는 제의를 행하였다.

문 7. 다음은 『고려사』의 일부 내용이다.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켰다. 수령까지 두어 위무  
하더니 태도를 바꿔 군대를 보내와서 토벌하니 어찌된  
까닭인가?  
○ 순비 허씨는 일찍이 평양공 왕현에게 시집가서 3남 4녀를  
낳았는데, 왕현이 죽은 후 충선왕의 비가 되었다.  
○ 윤수는 매와 사냥개를 잘 다루어 응방 관리가 되었으며,  
그의 가문은 권세가가 되었다.

- ① 충선왕대 이후에도 왕실 족내혼이 널리 행해졌다.
- ② 향리 이하의 층도 문·무반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다.
- ③ 여성의 재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 ④ 향·소·부곡 등 특수행정구역이 주현으로 승격되기도 하였다.

문 8. 다음 상소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윤집(尹集)이 상소하기를 “화의를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러하였으나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나라이고 노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원수입니다. … 지난날 성명께서 크게 분발하시어 의리에 의거하여 화의를 물리치고 중외에 포고하고 명나라에 알리시니, 온 동토(東土) 수천 리가 모두 크게 기뻐하여 서로 고하기를 ‘우리가 오랑캐가 됨을 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인조실록』 —

- ① 소현세자는 청에서 서양의 문물에 관심을 가지고, 천문관련 서적 등을 가져왔다.
- ② 조선은 청과 굴욕적인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 ③ 조선은 복수설치(復讐雪恥)를 과제로 삼았다.
- ④ 숭정처사(崇禎處士), 대명거사(大明居士)로 자처하며 출사를 거부하는 인물이 있었다.

문 9. 다음은 연대별 인구 정책을 상징하는 표어이다. 각 연대별로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연 대	표 어
(가)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나)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 <보 기> —

ㄱ. (가) 군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였다.  
 ㄴ. (나) 유신 체제가 성립되었고, 2차례의 오일쇼크와 중화학공업 과잉 중복 투자에 따른 경제 불황이 있었다.  
 ㄷ. (다) 6월 민주 항쟁과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이 있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문 10. 다음 선언으로 결성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싸워야 할 것이다.

- ①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실시를 주장하였고,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하였다.
- ② 민중의 직접폭력혁명으로 강도 일본을 무너뜨리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 ③ 언론을 통한 국민 계몽과 문맹퇴치운동, 민립대학 설립운동 등을 추진하였다.
- ④ 민족자본의 육성을 위해 자급자족, 토산품 애용 등을 주장하며 물산장려운동을 벌였다.

문 11. 밑줄 친 ‘왕’이 재위하던 시기에 편찬되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 왕께서도 밝은 가르침을 계승하시고 다스리는 도리를 도모하시어 더욱 백성들의 일에 뜻을 두셨다. 여러 지방의 풍토가 같지 않아 심고 가꾸는 방법이 지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옛 글의 내용과 모두 같을 수가 없었다. 이에 각 도의 감사들에게 명령하시어, 주·현의 노농(老農)을 방문하여 그 땅에서 몸소 시험한 결과를 자세히 듣게 하시었다. 또 신 정초(鄭招)에게 명하시어 말의 순서를 보충케 하시고, 신 종부소윤 변효문(卞孝文) 등이 검토해 살피고 참고하게 하여, 그 중복된 것은 버리고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취해서 한 편의 책을 만들었다.

- ① 『향약제생집성방』
- ② 『향약집성방』
- ③ 『향약채취월령』
- ④ 『의방유취』

문 12. 발해에서 일어난 일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장문휴가 당의 산둥지방 등주를 공격하였다.  
 ㄴ. 수도를 중경현덕부에서 북쪽의 상경용천부로 옮겼다.  
 ㄷ. 당으로부터 ‘발해군왕’에서 ‘발해국왕’으로 봉해졌다.  
 ㄹ.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ㄷ → ㄹ → ㄴ
- ③ ㄴ → ㄱ → ㄹ → ㄷ
- ④ ㄱ → ㄷ → ㄴ → ㄹ

문 13. 남북 관계에 대한 역대 정부의 합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박정희 정부 - 7·4 남북 공동 선언
- ② 김영삼 정부 - 남북 기본 합의서
- ③ 김대중 정부 - 6·15 남북 공동 선언
- ④ 노무현 정부 - 10·4 남북 공동 선언

문 14. 다음 자료 내용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 ① 유생 출신 의병장을 중심으로 13도 연합의병부대가 결성되었다.
- ② 유생과 전직 관료, 평민 출신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 ③ 명성 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으로 의병 운동이 확산되었다.
- ④ 의병 부대들은 간도와 연해주로 이동하여 의병 기지를 건설하였다.

문 15.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는 국가가 주도하여 산업을 재편하면서 ㉠경작지를 확대하고, ㉡상업과 수공업의 체제를 확립하여 안정된 경제 기반을 확보하였다. 또 ㉢수취 체제를 정비하면서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토지 제도를 정비하였다.

- ① ㉠ 농민이 황무지를 개간하면 일정 기간 소작료나 조세를 감면해 주었고, 여러 수리시설도 개축하였다.
- ② ㉡ 개경에 시전을 만들어 관영 점포를 열었고, 소는 생산한 물품을 일정하게 공물로 납부하였다.
- ③ ㉢ 국초부터 군현 단위로 20년마다 양전을 실시하여 1/10의 조세를 거두었다.
- ④ ㉣ 경종 때의 전지와 제도는 문무 관리의 지위와 직역, 인품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문 16.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총독은 사업의 정지와 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나) 제1조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① (가) - 「회사령」이다.
- ② (가) - 1920년대에 폐지되었다.
- ③ (나) - 「국가총동원법」이다.
- ④ (나) -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이후 제정하였다.

문 17.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sup>1</sup>의 조선경제사의 기도(企圖)는 사회의 경제적 구성을 기축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제 문제를 취급하려 하였다.

제1. 원시 씨족 공산체의 태양(態樣)

제2. 삼국의 정립 시대의 노예 경제

제3. 삼국 시대 말기 경부터 최근세에 이르기까지의 아시아적 봉건 사회의 특징

제4. 아시아적 봉건국가의 붕괴 과정과 자본주의 맹아 형태

제5. 외래 자본주의 발전의 일정과 국제적 관계

제6. 이데올로기 발전의 총 과정

- ① 우리 고대사를 중국 민족에 필적하는 강건한 민족의 역사로 서술했다.
- ② 일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극복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 ③ 실학에서 자주적인 근대 사상과 우리 학문의 주체성을 찾으려 하였다.
- ④ 순수 학문을 표방하면서 식민주의 사학에 학문적으로 대항하려 하였다.

문 18. 밑줄 친 ‘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관(大觀) 경인년에 천자께서 저 먼 변방에서 신묘한 도(道)를 듣고자 함을 돌보시어 신사(信使)를 보내시고 우류(羽流) 2인을 딸려 보내어 교법에 통달한 자를 골라 훈도하게 하였다. 왕은 신앙이 돈독하여 정화(政和) 연간에 비로소 복원관(福源觀)을 세워 도가 높은 참된 도사 10여 인을 받들었다. 그러나 그 도사들은 낮에는 재궁(齋宮)에 있다가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고는 하였다. 그래서 후에 간관이 지적, 비판하여 다소간 법으로 금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간혹 듣기로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늘 도가의 도록을 보급하는 데 뜻을 두어 기어코 도교로 호교(胡敎)를 바꿔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있는 듯하였다고 한다.

- 『고려도경』 -

- ① 우봉·파평 등의 지역에 감무관을 파견하였다.
- ② 국학 7제를 설치하여 관학을 진흥하였다.
- ③ 김위제의 건의로 남경 건설을 추진하였다.
- ④ 윤관을 원수로 하여 여진 정벌을 단행하였다.

문 19. 다음 법을 시행하기 이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 등 행위를 금지한다.

-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시효가 단축되었다.
- ②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 ③ 미국의 공법480호(PL480)에 따른 잉여농산물 수입이 도입되었다.
- ④ 국민방위군사건이 일어났다.

문 20. 19세기 부세제도인 도결(都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군역, 환곡, 잡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에 부과하여 화폐로 징수하였다.

ㄴ. 노비신공과 결세는 그 해의 작황을 참작하여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도별 총액을 할당하였다.

ㄷ. 양전하는 재[尺]를 통일하였고, 전세율을 1결당 4말 ~ 6말로 고정시켰다.

ㄹ. 제도적으로는 신분제에 따른 부세의 차별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ㅁ. 수령과 아전이 횡령한 관곡을 민의 토지에 부세로 부과하는 수단이 되었다.

- ① ㄴ, ㄷ, ㄹ
- ② ㄷ, ㄹ, ㅁ
- ③ ㄴ, ㄷ, ㅁ
- ④ ㄱ, ㄹ, ㅁ